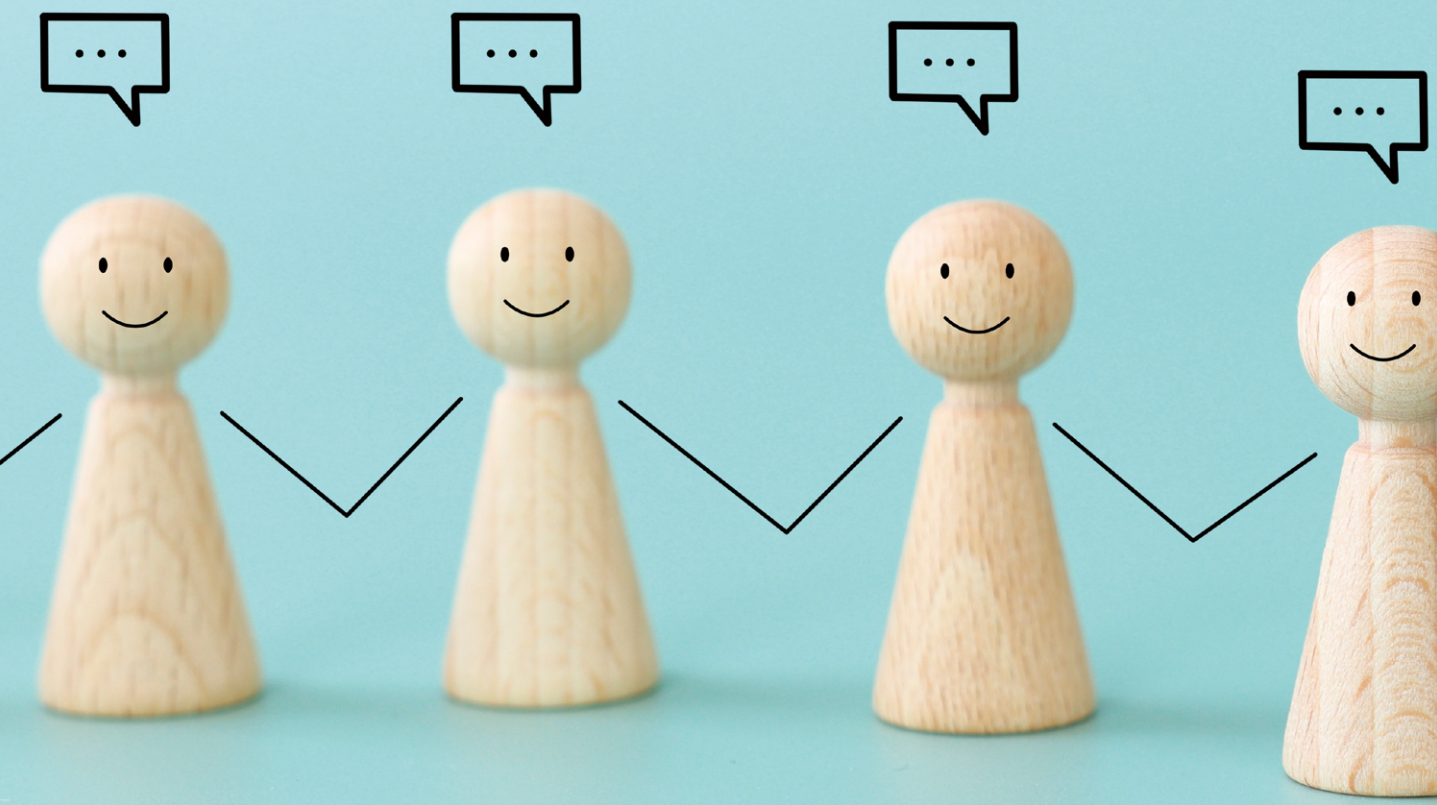
2023
VOL.583
12

온전한 삶을 위한 나의 가치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 교수**

월간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우리는 누구나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간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CONTENTS

2023 December VOL. 583

04 **내일을 열며**
-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06 **고용 아카이브**

12 **멘토크**
-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16 **레벨업 스토리**
-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밝은 내일을 이끌어주는

20 **슬기로운 회사**
- 건강하고 아름답게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24 **기자단이 간다**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자격증 준비하자!

26 **MOEL News**

30 **잡 큐레이션**
- 6개의 점으로 통하는 세상, 한글을 만지다

34 **취업 시크릿**
- 제2의 명함, 자격증으로 나의 가치를 높여라

36 **시네마 클래스**
- 생명과 인간 존엄에 대한 윤리적 질문 <트랜센던스>

38 **워커북**
- 다 그만두고 싶다!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

40 **낼툰**

42 **고용한입**

43 **MOEL letter**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83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한국애드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현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모두 나만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또는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혹은 여러 이유로 상처받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또는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은 결국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누구나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오늘이 내일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이 되어줄 것을 희망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내는 오늘 역시 어제 내가 걸어온 한 걸음이 만들어낸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합니다. 내일의 행복에 앞서 가치 있는 오늘을 위해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치 있으니까요.
그대의 오늘이,
그대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일터,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심일터를 지원합니다

'일'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일터'에서의 시간 역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9월, 워크넷에서 진행한 직업 가치관 검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고, '직업 안정'과 '경제적 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과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므로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일터를 운영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누려야 할 일터의 요건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여러 군데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리면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든 산재노동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은 어려움을 더하는 절차였지요.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노동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기반의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 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인데요. 산재노동자는 이들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부 ☎ 052-704-7422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두 공개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및 위험성 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고용노동부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 2월에 구축·운영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했습니다.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했고, 동시에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 자료 등을 신속하게 배포했어요.

9월부터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에 호응해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된 총 320여 건의 자료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된 320건 외에도 매월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단계
① 카카오톡 어플에서 채팅목록을 검색하세요.
② 우측상단의 **오픈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단계
③ 우측상단의 **돋보기** 을 클릭하세요.
④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 검색어를 입력하하세요.

※ 자료 다운로드 : 홈페이지(http://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중대재해 사이렌’

• **문의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044-202-8958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22년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2023년 11월 9일,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거제시가 추가로 지역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약 4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된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우수사례'이기도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45개(분소 22개 포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14개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을 안전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습니다.

안전기준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년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열었고,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 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202-8808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전국 각지, 안전문화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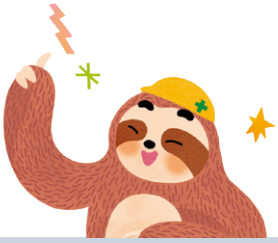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 2023년 3월부터 39개 지역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별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추진단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노사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 포럼, 지역행사, 홍보물 배포, 현장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9월까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전국 곳곳의 사업장과 축제를 방문해 총 732회의 캠페인을 진행했고, 전광판, 현수막 등으로 '안전문화 노출하기 특별 캠페인'도 282회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을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파(89회)와 기업의 각종 상품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71회), 시민들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는 안전문화 공모전(25회) 등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이를 실천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함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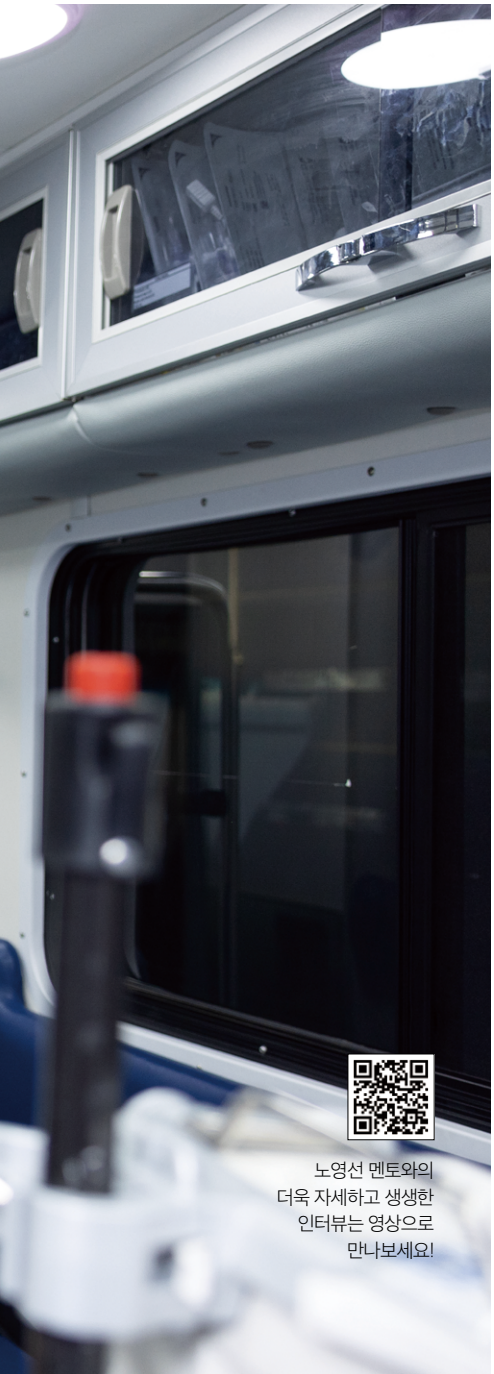


· **문의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992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 교수

중증 환자 위급 상황 시 외상 환자 65%, 쇼크 환자 90%가 병원 간 이송 중 상태가 악화됩니다. 즉각적으로 전문 처치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로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중환자실이 달립니다. 모든 국민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 첫 달리는 중환자실을 만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노영선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노영선 멘토와의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인터뷰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달리는 중환자실이라고 불리는 특수구급차 안에서 중환자를 이송하면서 병원이 아닌 도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달리는 중환자실'은 어떻게 고안하게 되었나요?

달리는 중환자실은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병원을 나가게 되면 위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한 팀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처치와 치료를 제공하여, 병원과 병원 사이의 공백을 메꿔주고 그 공백을 책임지는 응급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응급의료 체계는 국가별로 시스템이 달라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신고된 환자가 중증 환자로 판단되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는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환자를 의사 곁으로 데리고 오는 시스템이죠.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고, 다른 보건의료 체계나 보험 체계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증 환자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 곁으로 가는 시스템이 안전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안하게 되었죠.

Q. '달리는 중환자실'에서 이송했던 환자 중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방송에서도 말했었는데,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음압 분만실이 필요했는데 음압 분만실과 신생아 격리 병상이 같이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실에서 분만을 했었는데 달리는 중환자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생아를 안전하게 음압 격리실로 이송했었어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최근에는 대동맥 파열로 인해 원주에서 닥터헬기를 타고 온 환자가 기억납니다. 저희가 노들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할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모두 환자를 위해 대기했다가 촌각을 다투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환자들을 제때 수술받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Q.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지역사회 보건소장이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을 하려고 하니 1차 의료를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1차 의료를 하는 대표적인 과가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조금 더 만성적인 질환을 다루는 반면에 응급의학과는 환자가 당면한 응급 질환에 대해서 그 질환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에게 주는 도움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고, 제 성격에도 더 맞는 것 같아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저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좋아해서 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응급의학과는 24시간씩 근무해야 되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환자가 오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틀에 박힌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진 않거든요.(하하)

Q. 응급의학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예방의학자이신데요.

예방의학자는 질병을 예방하는 의학자이지만, 환자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를 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예방의학과는 크게 보건정책 그리고 역학, 환경 보건으로 나뉘어 있어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진 예방학 안에서도 저는 통계를 사용해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역학을 전공했어요.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혹은 질병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 혹은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 이 치료 결과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 발표를 하죠.

그냥 딱 들어도 응급의학과하고 예방의학과는 하는 일부터 완전 다르거든요.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죠. 환자가 아프면 응급실에 오게 되지만 환자가 진료를 하고 치료 결과가 좋아져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예방의학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일이긴 하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응급의학이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고 예방

의학도 역시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어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Q. 자료 분석을 좋아하셔서 논문 쓰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논문 쓰는 행위도 재미있긴 하지만 그냥 저 혼자 재밌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목적 자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니까요. 예를 들자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나 '심폐소생술 교육 보급'에 제 논문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구 결과가 활용되는 걸 보는 게 사실 의사로서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연구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다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현실판 '채송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하하) 너무 다들 인간적이고, 다들 주위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캐릭터들이긴 하거든요. 사실 유연석(안정원 역) 말고는 대부분은 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법한 캐릭터예요. 조정석(이익준 역)과 같이 약간 오지랖 넓은 그런 의사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유연석(안정원 역)처럼 숭고한 의사보다는 다른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미도(채송화 역)와 제일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극 중에서 채송화는 훨씬 더 정적이긴 한데 저는 그분보다는 좀 더 동적이긴 하죠.

Q. 월간내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물론 모든 환자는 모두 자기가 가장 응급하고, 가장 중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질병의 위중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의 아웃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환들은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질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겨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다 같이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밝은 내일을 이끌어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인천환경공단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10곳은 지난 8월 28일, '인천청년인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지원한 미취업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형 프로그램과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 인천환경공단은 총 6명의 참가자가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감돌기 시작한 업무 환경

사업의 장단점을 묻는 말에 인천환경공단 송기형 과장은 단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3개월 간 인턴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며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직장이 그러하듯 업무가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 업무량 자체보다 기술 부족,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인턴들과 여러 고민을 공유하며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내 분위기가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부침이 있을 때 노력하는 인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적잖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자사 공단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 인재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업무를 단순히 채용 절차만 준수하는 차원으로 여기지 않고, 공단에 힘이 되어줄 지역사회의 서포터즈와 인재를 직접 발굴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지역 인재

인천환경공단에 머무르고 있는 인턴들은 매사 적극적이고 훌륭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최근 공단에서 하수처리사업과 관련한 해외 사업을 구상할 때에도 외국어 영역에서 맹활약을 펼쳤다는데요. 엑셀 프로그램이나 자료 출력과 같은 사무 업무에 관해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턴들은 8월에 사업을 시행한 이후 9월부터 실무에 투입되었고, 전공과 적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자체적인 부서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목과를 전공한 인턴 지연 씨는 해외 사업에도 투입되는 등 곧바로 실무 업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팔에도 방문하고, 영어 인터뷰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해외사업 송 과장이 소속된 인사평가팀에서는 채용 서류 정리, 각종 위원회 개최, 임직원 교육 지원 결과 등

서투르지만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 과장은 사업 참여 전후의 가장 큰 변화로 임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이전의 공단은 인턴 제도가 활성화된 기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 3개월 간 인턴과 함께 근무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요. 인턴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여겨질 정도로 열심히 임해주었습니다. 공단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재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앞으로 이를 뒷받침해 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작과 가능성의 발견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직무 적성 검사를 해 볼 수 올해 추진되어왔던 사업에 대한 정리를 주로 맡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인턴 직원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재무팀으로 배치된 직원은 그동안 밀린 업무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던 원본 증빙서류를 정리해 주었고, 직접 수로 유량을 계산해 보기도 하고, 재물조사도 담당자와 함께 완료해 주었습니다. 사무 메일 작성이나 외국 바이어에게 보내는 메일 번역 업무, 발표문 작성 등 품이 드는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이 정착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완주해 준 인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전공과 연계한 업무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분야에 대해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도 있습니다. 인턴 태한 씨는 기존에 회계 관련하여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실무에서 회계 업무에 투입돼 새로운 배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공을 연계해 취업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면 인턴 경험을 통해 이 직무가 내 적성에 맞는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 효정 씨는 학교와 직장의 문화가 다르기 마련인데 사내 조직 문화를 미리 경험해 본 시간이 값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송 과장은 업무 능력도 직장 생활에 필수 요건임은 분명하지만 작은 성취감들을 통해 흥미와 자신감을 붙이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간 모든 순간이 보람된 순간이었지만 공단에서 진행했던 전국 환경공단 노사협의 행사들에 다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동료 간의 끈끈함을 느낀 순간을 제일로 꼽았습니다.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이지만,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탄탄한 준비와 체계 마련이 선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는데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턴 차원에서 일경험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턴들과 좋은 시너지를 내어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 일경험과 지역 인재 발굴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요즘 진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청년들이 적성과 강점을 발견해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의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과 나의 마음 건강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여정에 함께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을 찾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개념이 생소할 때부터,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위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공헌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춰 사회(S) 분야의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82년 4월 사회복지법인 태평양복지회로 설립되어 올해 설립 41주년을 맞이한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2023년부터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Look at ME 캠페인 아래 청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고 마주하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뷰티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한 것은 뷰티 업계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의 '뷰티 산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뷰티 교육의 A to Z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의 전문성을 살려 뷰티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 향상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뷰티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 팀 프로젝트, 현직자 멘토링, 취업 준비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한 만큼 가장 우려했던 것은 참여자 모집이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뷰티 분야의 주요 직무 교육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이 유일하다는 점과 현직자의 실무형 교육이 제공되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한 까닭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완성도 역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커리큘럼 개발부터 강사까지 기업 현직자가 직접 참여하며 실무 기반의 차별화된 교육을 갖추었

을 뿐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도 함께 강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 진출에 필요한 경제, 노동법 등 인문 분야를 다루는 공통 교육 과정도 포함시켜 균형을 맞추었으며, 교육 우수 수료생에게는 각 분야의 현장 실습 기회(인턴십)도 제공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뷰티 분야의 전문성과 취업멘토링 그리고 현장 경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합 패키지였다고 합니다.

청년 교육생들과 현직자들의 호흡

메이크업 아티스트(브랜드/프리랜서 과정), 헤어 강사,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분야로 진행한 이번 과정에서는 중도 포기자 없이 참여한 교육생 38명 전원이 수료했으며, 최종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교육 우수 수료생 7명에게는 현장실습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교육 과정부터 실습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함께한 까닭에 교육생들은 강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닌 선배와 후배로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교육 수료생 중에서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취업된 사례도 있으며 대부분 국내 유명 뷰티숍과 헤어숍, 해외 유명 뷰티 브랜드 등 뷰티 업계로 진출하였습니다. 뷰티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 수료생의 역량과 자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의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 과정은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뷰티 인재 양성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나다움을 찾아갈수록

취업 연계 외에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열정은 ESG 참여 수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 팀 프로젝트 기업+영 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현직자들도 청년 세대의 다양한 고민과 트렌드를 경험하고 자신의 업(業)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앞으로도 뷰티 업계 진출을 꿈꾸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 과정'을 비롯한 취업 준비 청년 멘토링, 현직자와 함께 하는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아닌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음 건강 사업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Interview

담당자 | 정삼영

Q.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참여 청년들은 실제 실무 현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현직자로부터 직무 교육을 받는 점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꿈꿔온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현직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얻어 취업까지 이르게 되는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Q. 사업을 통해 참가자나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길 원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커리어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이 청년에게 따뜻한 위로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양성 과정 실습생 | 이소정

Q.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 후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학원에서 쇼호스트에 대해 배웠어요. 이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뷰티 분야의 심의나 시연 등 다양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 과정 실습생 | 김은정

Q.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과정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실무자 분들께 직접 교육받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특히 진로나 직업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헤어 강사 양성 과정 실습생 | 이슬기

Q.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또 다른 기회라 생각하고 도전했습니다. 이후에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나는 안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자격증 준비하자!**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중요시되는 요즘.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아껴 쓰며 개인의 발전을 위해, 취준생들은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임상심리사 2급(서비스 분야) 시험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알아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은 크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격 단계별로 응시자격도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기능사 - 산업기사/기사 - 기능장/기술사 순으로 응시자격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의 경우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기사는 관련학과 대졸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자격 종목별로 응시자격이 상이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분야는 사업관리, 보건의료, 식품가공, 기계, 농림어업 등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숙달된 기술인력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수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약 16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가 34.8%(556만 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에 도전하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 졸업자 및 그 졸업 예정자'라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 수련 과정을 1년 동안 진행하며 성공적으로 수료하였습니다. 비대면 과정이었지만, 여러 심리검사 이론과 실제에 대해 충실히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라면 야간이나 주말 시간에 운영되는 실습 수련 기관을 찾아 수련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은 2022년까지 연 2회 시행되다가 응시자가 증가하여 2023년부터 연 3회

구분	필기원서 접수 (인터넷 / 휴일 제외)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원서 접수(휴일 제외)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3년 정기기사 1회	2023.01.10~1.19 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02.07~02.08	2023.02.~13~03.15	2023.03.21	2023.03.28.~03.31 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04.16~04.17	2023.04.22~06.25	2023.06.27
2023년 정기기사 2회	2023.04.17~.04.20 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05.07~05.08	2023.05.13.~06.04	2023.06.14	2023.06.27.~06.30 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07.16~07.17	2023.07.22~08.06	2023.09.01
2023년 정기기사 3회	2023.06.19~06.22 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07.02~07.03	2023.07.08.~07.23	2023.08.02	2023.09.04.~09.07 빈자리추가접수기간 2023.10.01~10.02	2023.10.07.~10.26	2023.11.15

로 응시 기회가 늘어났는데요. 필기시험의 경우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5개 과목을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치르게 됩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수험서 한 권과 과년도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해서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필기시험은 CBT 시험으로 전환되어 컴퓨터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종료 직후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 합격자 발표 때까지 마음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은 필답형 주관식으로 3시간 동안 약 2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역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적지 않은 수험 범위를 이해하고 암기하여 직접 기술하는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기초부터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실기 시험 도전은 3점 차이로 불합격, 최근 3회차 시험에 응시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임상심리사 2급 검정 현황을 보면 응시자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및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문필섭 정책 기자의 생생한 현장 기사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노동개혁의 출발점,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공정일터 #안전일터 #청년근로자

지난 11월 1일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들은 일터에서 직접 겪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함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은 부당한 일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히 최근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지방관서에서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피해근로자들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을 위한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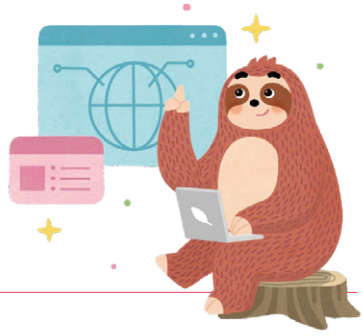
#친절채용 #온보딩 #공정채용우수사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작년의 2배가 넘는 90개소가 응모하여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22개소(민간기업 12개소, 공공기관 10개소)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민간기업의 포상 비중을 높이고(8점→12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포상을 신설(2점)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 심사과정에 청년보좌역이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는 공정채용의 3대 요소인 ①투명 채용, ②능력 중심 채용, ③공감 채용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수상 사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구직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친절한 채용, 둘째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직원들의 적응을 돕는 창의적인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채용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3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 운영으로 극복하다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

최근 설비 투자 등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업종에 대해 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 단위의 특화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기업이 밀집돼 있는 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 등 7개 고용센터(이하 7개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기업과 구직자의 시각에서 인력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맞춤 제공합니다. 더불어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황 및 채용 동향 등을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지난 사고에서 얻는 예방의 교훈

#반면교사 #재해예방

지난 11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을 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재해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한 최초 시도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전문 작가가 집필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내용을 감수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엄밀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사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수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의 사고 개요, 각 사고별 예방 대책을 일람표 형태로 포함해 작년 한 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전면 공개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5 함께 만들어 가는 차별없는 일터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정한대우

지난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10월 금융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차별 처우 사례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근무혁신, 유연근무를 활발하게

#일생활균형 #유연근무

지난 11월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제스파를 찾아 대표이사 및 근로자들(5명)로부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건강, 미용기기 유통기업인 ㈜제스파(대표 김태주)는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로 이루어진 청년 친화 강소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원거리 출퇴근이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8~10시까지 시간 단위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여 현재 현장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이기도 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려금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신규 지원하는 등 일부 확대할 계획입니다.

7 추운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따뜻한옷 #따뜻한물 #따뜻한장소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기에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으로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8 고용허가제를 통해 배운 업무지식과 기술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우수사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귀국근로자를 초청하여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후 재정착에 성공한 귀국근로자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고용허가제 성과를 알리고 향후 더욱 성공적인 제도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한 귀국근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귀국근로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뿌반낍(Vu Van Giap)씨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5인) 모두 한국에서의 근무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재정착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우수사례 수기에서 귀국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에서 배운 업무지식과 기술은 물론, 적극적인 자세·태도·일하는 방식 등이 귀국 후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6개의 점으로 통하는 세상

한글을 만지다

점역·교정사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소리와 함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점자는 지면이 볼록 튀어나오게 점을 찍어 손가락 끝의 촉각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 문자로 시각장애인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자는 크고 작은 6개의 점을 문자 및 부호를 나타내게 한 것으로 나라마다 문자가 다르듯 점자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안내도 등에서 오돌토돌한 점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글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반포한 '훈맹정음*'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 11월 4일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언어와 관련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처럼 점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간 의사소통을 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점역·교정사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일반 도서나 강의 교재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 도서로 바꾸는 일을 점역이라고 하며, 점역사는 글을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변환하는 사람입니다. 점역을 마치고, 점역된 내용을 일반 도서와 비교하면서 오타나 맞춤법 등을 교열(검열)하는 사람을 교정사라고 합니다.

한 권의 점자 도서를 완성하기까지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수개월까지도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점자 도서는 시각장애인이 신청한 도서를 구입해서 한 장씩 스캔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로 추출하거나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합니다. 1차 교열을 본 텍스트 파일을 점자로 제작해 점자 맞춤법에 맞게 교정을 보고 나서 점자 프린트로 출력해 책의 형태로 제본합니다. 그래프나 도표, 수식이 있는 제2외국어나 수학, 과학, 음악 등 특수 과목은 점자를 일일이 손으로 찍어 제작하게 되죠. 점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풀어쓰기 때문에 원고를 점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책의 분량은 2~3배, 특수 과목은 10배 이상까지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책 한 권을 점자로 번역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자 도서는 최근 동화책이나 그림책에 투명 라벨 스티커 용지로 점자를 출력해서 붙인 점자라벨도서와 같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점자책 종류도 제작되고 있다고 해요.

훈맹정음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6점식 한글 점자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민정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점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에서 1995년도부터 점역·교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8년째 점역사 업무를 맡아 시각장애학생의 수업에 필요한 교재, 수업자료, 읽고 싶은 책 등 인쇄된 글자를 점자로 점역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점역·교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들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글자를 점자로 점역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인쇄된 글자를 점자로 변환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점자로 제작하는 역할을 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도 점자로 변환한답니다.

세상과의 소통과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해요.

Q. 점역·교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점역·교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점역·교정사 자격증은 1~3급으로 구분되고, 점자 상식, 점역 실기, 교정 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등 여러 과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국내 점역·교정사는 2023년 6월 기준 전국 점역교정사 수는 1급 195명, 2급 202명, 3급 1,129명 등 총 1,526명인데 여전히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죠. 점역·교정사의 제작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점역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제작 기간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설책은 1~2주, 전공 서적은 1~2개월, 제2외국어 원서나 수식과 도표가 많은 이공·상경계열 전공 도서는 2~3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전자도서 이용자가 늘면서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습득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문자인 만큼 계속해서 점자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점역·교정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 정도라고 해요. 점역·교정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쉽고 편한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교열·검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 잘 맞지 않을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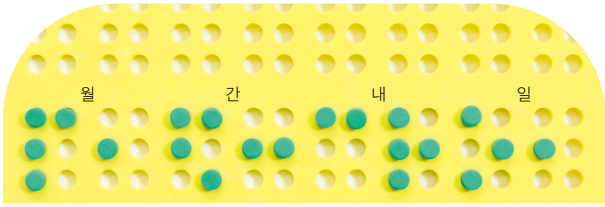
Q. 생소한 분야의 책을 접할 때는 막막할 것 같은데요.

제2외국어 관련 교재를 점역해야 될 때 난감했어요. 해당 언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점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물론 전문가 또는 전공자의 자문을 받아 점역을 진행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언어나 문자를 알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2외국어의 기본 문자 정도는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점역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채우며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아요.

Q. 점역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28년간 점역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하게 점자 도서만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의 문자 생활을 돕는다는 점이 점역사라는 직업을 매력적이게 한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의 책을 접하고, 그 책을 어떻게 점역할지를 고민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했어요. 점역사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늘었지만, 점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출판되는 일반 도서 중에 점역 도서는 5%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학습 및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점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 직무 사전

★ 직무명 점역·교정사

★ 직무정의

-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글자를 점자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사람

★ 직무 내용

-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판기, 타자기, 컴퓨터점자프린터기 등을 이용해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사람으로 해당 자격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만을 전문적으로 점역하고 교정한다.

★ 응시자격

1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4년 이상의 경력자 ※1급은 영어 과목 필수
2급	
3급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취득방법

구분	내용	
검정과목	1·2급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3급 국어	국어
시간	각 과목 당 1시간 20분(시각장애인인 경우는 2시간)	
검정방법	필기시험	국어 과목의 점자상식 분야 시험(3급만)
	점역실기	일반 글을 점자로 옮김
	교정실기	점자로 오기된 부분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 점자로 표기

★ 관련 홈페이지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jum.kbuwel.or.kr/QualifyingExamination/Info)

제2의 명함,
자격증으로 나의 가치를 높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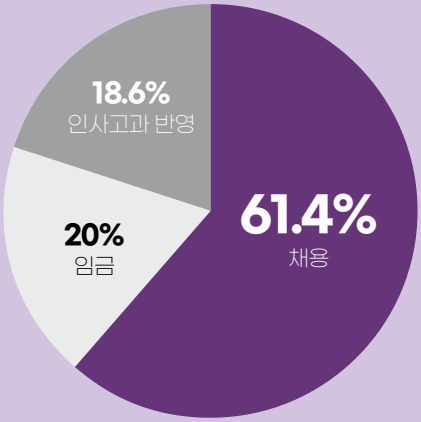
취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외활동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이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공이나 지원하려는 직무 또는 관련 분야에 요구되는 자격증은 각기 다르겠지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취득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격'이란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은 취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제2의 명함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자격증 취득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예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국가기술자격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중 새롭게 신설된 종목, 응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종목 등을 살펴보면 일자리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을 접수한 수험자 총 2,279,820명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직자라고 응답한 780,920명(34.3%) 중 67%인 523,109명이 회사에서 자격증 보유를 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격증 보유가 현장에서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대 내용으로는 채용우대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고, 임금우대 20.0%, 승진·인사배치·인사고과 등 인사상 우대 비율이 18.6% 순이었어요. 취업에서도 자격증이 힘을 쓰고 있어요.

또한, 자격 등급이 높을수록 우대받는 비율이(기술사 85.8%, 기사 74.1%, 기능사 55.3%)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술기능 분야에서 직장 내 우대 비율이 높은 자격은 기사 등급(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화재감식평가기사(89.6%)였으며, 토목(83.4%), 건설안전(81.8%), 건축설비(81.2%), 에너지관리(78.7%) 순이었습니다.

산업기사 등급(전문대 졸업 이상)에서는 건설안전산업기사(82.0%), 건축(80.3%), 공조냉동기계(80.3%), 소방설비(전기)(80.2%), 전기공사



자격증 취득으로 회사에서 받은 우대

(8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사(제한 없음) 등급에서는 위험물기능사(76.9%), 가스(76.2%), 환경(74.6%), 에너지관리(73.9%), 공조냉동기계(73.9%) 자격 순으로 우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상심리사 2급(58.2%), 직업상담사 2급(38.4%), 사회조사분석사 2급(36%) 자격 순이었습니다. 우대 분야 중에서는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이 채용시 가장 우대(62.9%)를 받았고,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이 승진 등 인사상 우대(50.9%)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공조냉동기계 자격의 채용우대(62.8%)가 높았고, 기능사 등급에서는 위험물 자격의 인사우대 비율(39.9%)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취업 성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정기) 시험일정은 큐넷(Q-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정기)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 체크 포인트

원서접수

- 원서접수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 18)에는 원서접수 불가

회차별 시행종목

- 각 회차에 응시할 종목 미리 확인
- 국가기술자격 '상시' 시험일정은 큐넷(Q-net)에서 확인

생명과 인간 존엄에 대한 윤리적 질문
<트랜센던스>

영화는 역사와 당대 사회를 반영한다. SF영화의 시공간과 미래 세계나 외계는 당대 사회의 은유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우화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즉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예견하는 장르가 SF이다.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인류가 불멸을 시도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점점 더 낙관적인 예언이 등장할 것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불멸이란 단어가 헛된 꿈만은 아니었다는 사실과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우리 시대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엄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격동기를 배경으로 인간 존엄을 둘러싼 고민과 분투를 지적이고 섬뜩하게 그린 윌리 피스터 감독의 <트랜센던스>. 영화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라고 말하는 과학의 시대에 던지는 윤리적 질문이다.

사랑하는 이가 죽어간다.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도 없다. 인지과학자 윌은 슈퍼컴퓨터 '트랜센던스' 완성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극단적 테러리스트의 총을 맞고 방사능에 중독된다. 인간의 두뇌와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을 고스란히 담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하는 급진적 반대론자들의 소행이다. 남은 생명은 일주일.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내 에블린은 그의 정신이라도 남기겠다는 마음에 윌의 뇌를 슈퍼컴퓨터에 업로드 한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도 잠시. 인공지능으로 부활한 윌의 힘은 가공할 수준이다.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순식간에 흡수하고 재편한다.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세상을 쥐락펴락할 만큼 한계도 제한도 없다. 급기야 나노기술로 자기복제가 가능해진 윌. 마침내 타인 몸에 자신을 이식하면서 육체까지 소유하지만 아내는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목소리와 기억과 지적 수준이 남편과 같다고 해서 이 기계를 윌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인지과학은 인간과 컴퓨터의 뇌가 동일하다는 데서 시작하는 학문이다. <트랜센던스>는 지성과 감성을 모두 장착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인공지능이 된 윌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신의 수준까지 올라선다. 산업과 의학·생명과학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꿈꾼다. 모니터 속 존재는 목소리를 통해 결혼기념일 등의 소중한 추억을 고스란히 기억하지만, 정신이 윌이라고 해서 그가 윌은 아니다. 타인의 몸을 가진 영혼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필멸하는 인간이 불멸을 꿈꾸며 만든 문명의 이기들로 창조된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모습. <트랜센던스>는 인지과학과 생명공학이 정점에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 인류는 행복, 불멸, 신성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과학이 꿈꾼 미래와 인간 존엄 사이에서 보다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개봉 2014
장르 SF, 드라마
감독 윌리 피스터
주역 조니 뎁 (윌 캐스터 역)
레베카 홀 (에블린 역)
모건 프리먼 (요셉 태거 역)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 존엄을 돌아보기

아마존은 지난 8월부터 미국 시애틀 물류 창고에 휴머노이드 로봇(프로토 타입)을 배치했다. 디지트는 2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으로 팔과 다리가 있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두 다리로 걸으면서 상자를 나르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아마존 직원들은 해당 로봇이 현장에 도입될 경우,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은 자사의 로봇 시스템이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이전에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은 숙련된 역할의 새로운 직업 700개가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LG유플러스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공개한 다이어리 서비스 '답다(답장 받는 다이어리)'는 이용자가 기분에 따라 작성한 일기에 대해 AI 상담사에게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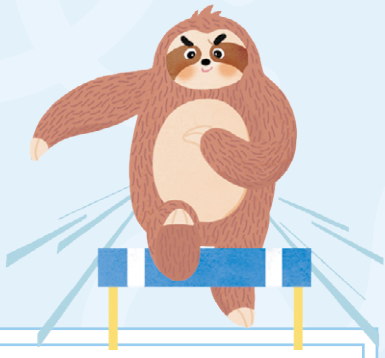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일부 대체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 협력 등이 필요한 영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인간의 가치가 손상될 일은 없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로봇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는 쉽다"라는 모라벡의 역설을 바탕으로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트랜센던스>는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개별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하며 계량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남아 있을 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다 그만두고 싶다!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업무량 때문에 야근을 계속하거나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후군이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한 번쯤 겪는 번아웃 증후군은 'Burnout' 단어 그대로 '모두 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의욕적이던 마음과 에너지가 무기력해지고 일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번아웃 증후군은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 피로 누적, 목표를 이루려는 강박 등이 원인입니다. 일시적인 번아웃 증후군도 있지만, 자주 겪을수록 불면증, 우울증, 과다수면증 등 정신질환과 심질환으로 번질 수 있어 초기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극복하세요!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쉼 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열심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성과와 실적이 나오지 않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또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한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직장과 삶을 분리 시키기

업무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퇴근 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는 최대한 회사에서 해결하고 회사 밖에서는 나의 삶과 휴식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2 현명한 휴식

휴식을 하는 동안에는 업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휴식을 찾아 업무로부터 오는 불안함과 강박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휴식을 가져야 해요.

3 성취감 있는 작은 목표 세우기

영화, 독서, 운동 등을 하면서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업무 스트레스로 눌려있던 성취감이 생기고 어느새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도 한답니다.

4 취미 생활하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찾아 떠나보세요. 미술, 맛집 탐방, 여행, 사진 찍기 등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취미로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요.

5 규칙적인 생활 패턴

피로가 누적되면 육체도 정신도 지치기 마련인데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소 6~8시간 적정 수면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 생체리듬을 바로잡고 덩달아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요.

6 일상에서 벗어나기

답답한 회사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사방이 트인 자연 속으로, 또는 업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서 매번 반복적이고 같은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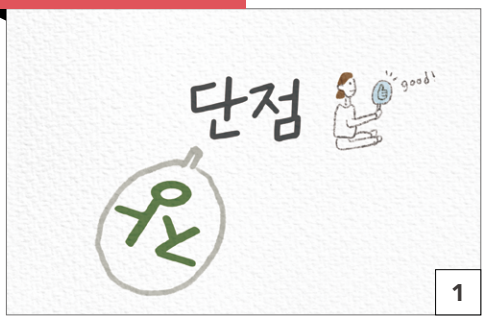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 증상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증상 중 3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어요.

- ☐ 짜증이 자주 나고 불만이 많아진다.
- ☐ 출근을 생각하면 피곤하고 괴롭다.
- ☐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감을 못 느낀다.
- ☐ 잠을 자도 피로가 누적되고, 잠을 설친다.
- ☐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 ☐ 업무와 내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 ☐ 이전과 달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
- ☐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 ☐ 업무를 하면서 부담감과 불안함으로 지친다.
- ☐ 자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낼튼

나의 장단점

글·그림
여혜리



1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 잠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2

3

사연을 읽던 라디오 디제이가 말했다.

"
느리다는 건
다른말로 꼼꼼하다는 거고요.

눈치를 본다는 건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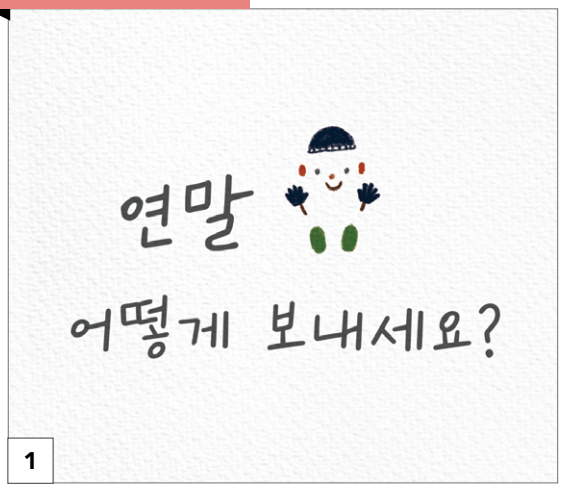
나는 내 단점에 맞췄던 포커스를 바꿔보기로 했다.
나는 섬세하고 관찰력이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5

지금부터 나에게 긍정 기운을
듬뿍 줘보는건 어떨까?

6

연말 잘 보내기


연말
어떻게 보내세요?
1

2
기다렸던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거고

구석구석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사람도
3

4
누군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이불 속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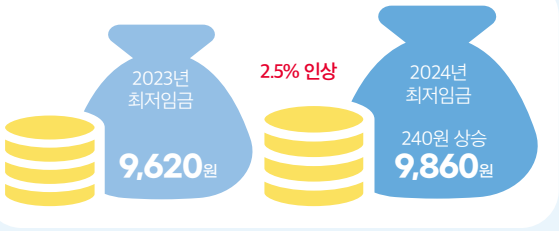
내게 맞는 방식으로 잘- 비워내고 잘 채우는
건강한 연말 되시길 바라요.
6

2024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시급)

직장인, 사업주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VS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인상된 240원이 증가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2023년 대비 시간당 240원 인상

최저임금 반영시 월급
2023년 대비 월 50,160원 인상

최저임금 유의사항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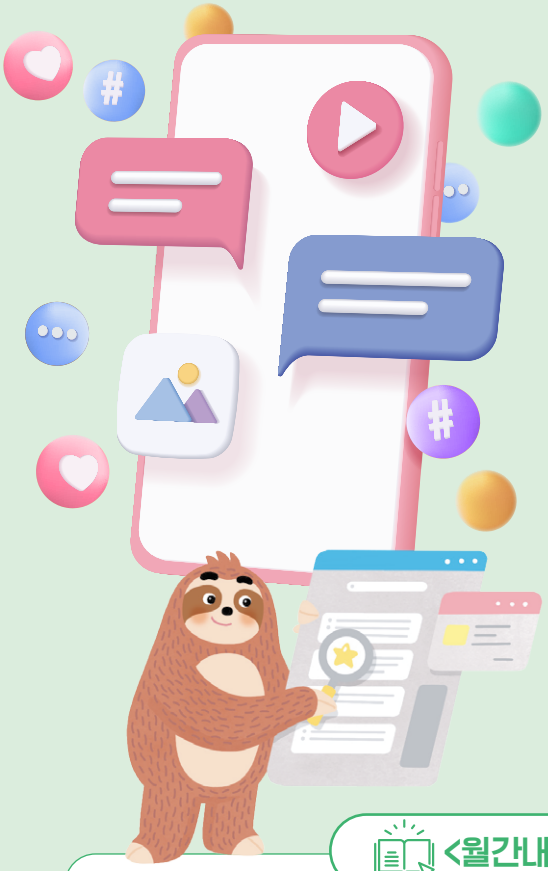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아니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 접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 1350 |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일스타그램



웹진에서 만나는 #일스타그램 이벤트

여러분의 일은 어떠신가요?
자랑하고픈 근무 환경, 든든한 나의 동료,
보람찬 나의 업무, 노력이 묻어나는 구직활동까지.
<월간내일>에서 구독자들 저마다의 '일'을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웃고, 즐겨 보아요.

참여방법

1.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택한다.
2.본문에는 관련 코멘트와 함께 해시태그 **'#월간내일_일스타그램'**을 필수 기재하여 게시한다.

* 비공개 계정은 참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여혜택

참여 게시물이 해당 웹진에 게재될 시, 디저트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첨자에겐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0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웹진 바로가기

02

왼쪽의 늘봄이(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